

수행과제명 여성기업인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내 여성기업인을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김종숙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35 / E-mail: jskim@kwidimail.re.kr)

여성기업인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한 여성기업의 대응 현황을 분석하여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사업체 특성과 구성의 변화를 보면, 여성사업체 수와 비중은 증가하지만 여성기업체는 남성 기업체보다 규모와 매출액에서 여전히 영세하며 숙박업 및 음식점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보면 여성사업체의 재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비교적 위험을 회피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가고 있는 성향이 있음. 자금지원, 세제지원, 인력 지원 등과 같은 정부 지원정책은 잘 인지하고 있었으나, 수출지원이나 재창업 지원 등과 같은 정책에 대한 인지는 부족하고, 여성기업들이 정부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복잡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낮은 자금지원 한도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보고 있음. 특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여성 벤처기업의 수도 감소하고 있으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소유한 특허권의 수도 적음.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내 여성기업 213개소를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 대응 및 필요한 정책 등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준비 및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8.1%를 차지하였음.
 - 여성기업이어서 더 어렵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 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응답이 더 많게 나타남.
 - 성장 단계별로 진입기에는 자금, 판로, 마케팅 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고 있고 성장기에는 자금, 인력확보, 임금상승 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고 있음.
 - 최근 3년간 정부로 부터 융자 및 보증지원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 기술이나 기술인력 지원을 받은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여성기업전용 벤처 펀드 참여, 여성 전용 R&D 자금지원, 기술보증 시 여성기업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 등에 높은 참여 의사를 보임.
 - 소요 시간이나 여건 등의 미비로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이 상당수 있으므로 정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장의 애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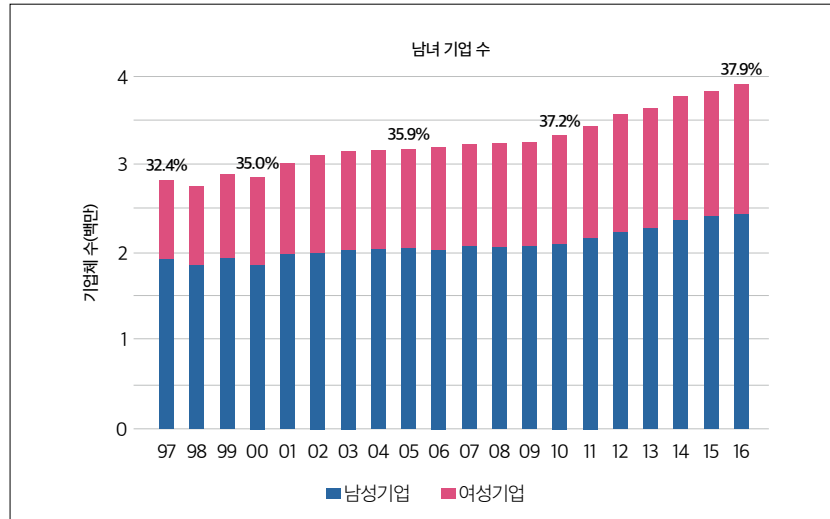
1. 배경 및 문제점

- ④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으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주로 소규모 영세 업체를 운영하는 여성기업들은 변화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선행연구결과들은 보고하고 있음.
- ④ 여성기업들이 처한 4차 산업혁명 등 경영환경의 변화를 진단하고, 이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현재 여성기업이 참여하는 정책이 해당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혁신을 끌어내는 데 충분한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 방향과 과제들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 ④ 연구의 주요 방법으로 문헌 연구, 통계 원자료 분석, 실태조사 및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 하였음. 여성기업 대상 지원정책 및 사업 관련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여성기업실태조사,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등을 분석하였음.
- ④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산업에 속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213개 기업의 설문 조사를 하였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등록된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중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함. 주요 조사 대상 업종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이며, ‘제조업’ 중에서 제품개발 및 공정의 변화 등을 꾀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업체임.
- ④ 전국사업체 조사 분석 결과
 - ▶ 여성기업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비중도 약간 증가하고 있음.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업종편중은 심화하고 있음. 반면 남성 사업체의 사업경력도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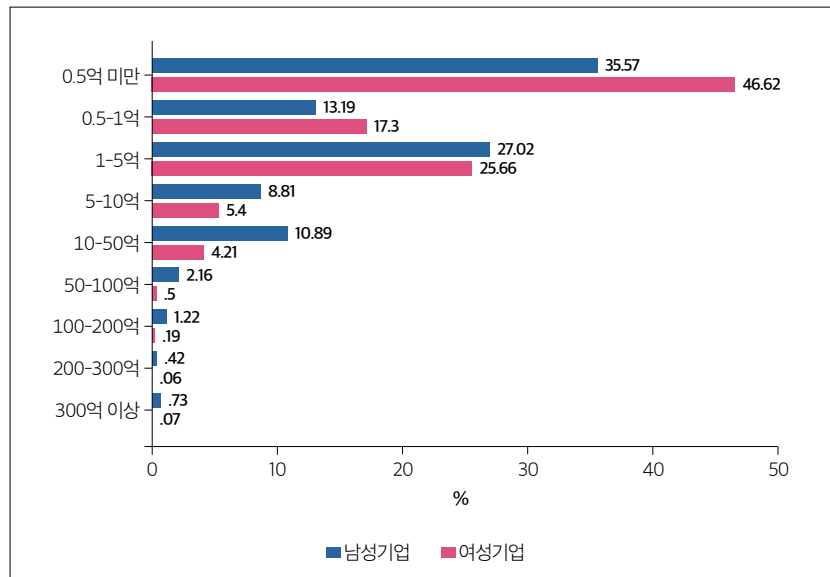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대표자 성별 기업체 수의 변화



주 : 막대 그래프 위 숫자는 여성기업체의 비중을 나타냄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997~2016년도 자료 재구성.

- ▶ 매출액 규모도 매우 영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중 매출액 1억 이상에서 남성기업보다 여성기업이 더 높은 비중을 보이는 산업은 출판 영상방송 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건설, 하수 폐기물, 전기·가스 수도, 광업, 농림어업임. 매출액 5억 이상 중 여성기업매출이 더 높은 산업은 아예 없을 정도로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편임.

[그림 2] 대표자 성별에 따른 매출액 분포(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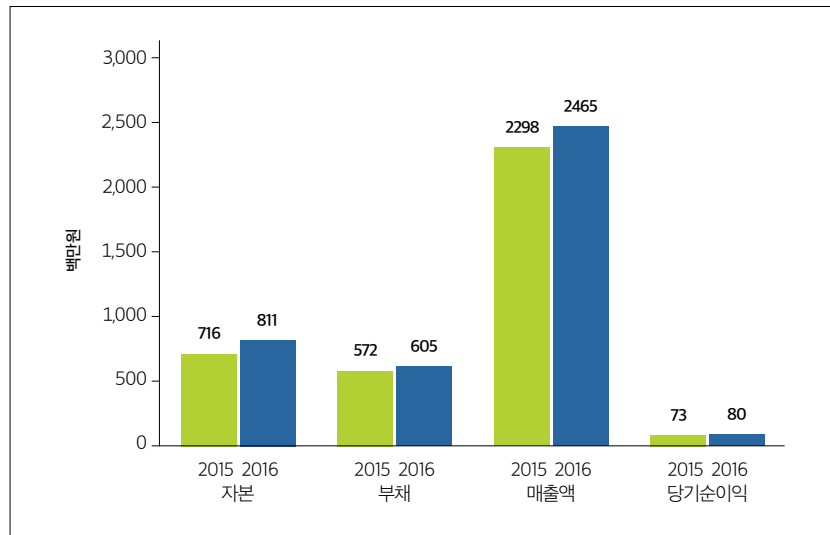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6년도 자료 재구성.



여성기업실태조사 분석 결과

- ▶ 여성기업의 평균적인 재무 상태는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2015년과 2016년 자기자본 규모는 각각 7억 1천만 원과 8억 1천만 원 정도임. 같은 기간 동안 부채는 평균 5억 7천만 원과 6억 원 정도를 보여,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판단됨. 연간 매출 총액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23억 원과 25억 원을 보이나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동안 7천 3백만 원과 8천만 원을 보여, 매출액에 비교해 크지 않음.

[그림 3] 여성기업 재무 상태: 2015-2016



주 : 각 항목의 중위값을 나타냄

- ▶ 여성기업실태조사에서 인지도 높은 정책은 자금, 인력, 세제지원 등임. 인지도 낮은 정책은 기술, 판로, 정보화, 수출, 사업전환 지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체적으로 여성기업은 정보 부족을 경험하고, 정책의 자격조건 완화, 지원 규모 확대, 신속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분석 결과

- ▶ 여성 벤처는 감소세가 뚜렷하며 더욱 고위험 분야에 여성의 진출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2012년은 여성이 대표이사인 벤처기업의 비율이 7.0%였으나, 2017년에는 그 비율이 4.12%로 감소하였음. 벤처 산업은 주로 제조업, 출판 영상방송 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 벤처 분야에서도 성별 분리가 나타나 산업재산권 중 디자인은 여성기업에 주로 집중되고 있고, 특허, 상표권, 해외 산업재산권 분야는 남성기업에 집중되어 여성기업 진출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여성기업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은 거의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총예산은 2004년 46.8억 원에서 2018년 177.9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 ▶ 2018년 지원사업 중에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의 여성기업들이 주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은 1) 여성 벤처 활성화, 2) 여성 벤처 펀드, 3) 여성기업전용 R&D라 볼 수 있으며, 이 세 사업에 투입되는 2018년 예산은 각각 6억, 60억, 100억임. 이는 여성 벤처 펀드를 포함한 여성기업 지원사업 총예산인 237.9억 원의 70%임. 전체 예산에서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의 여성기업들이 지원받는 예산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음.
- ▶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의 여성기업들은 여성기업만을 위한 사업 이외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일반 중소기업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음. 특히 R&D 사업, 기술보증사업 등은 일반 여성기업보다 기술지식기반 여성기업, 특히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의 여성기업들이 참여하기에 적합한 사업임. 2017년에 중소기업지원사업(소상공인 및 중견기업 영역 제외)에서 여성기업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R&D에 643억 원, 정책자금으로 5,133억 원, 보증사업에서 2조 5,620억 원, 컨설팅에 19억 원을 지원하였음. 분야별로 여성기업에 지원된 금액의 비중은 R&D 7.4%, 정책자금 11.0%, 보증 22.0%, 컨설팅 15.1%에 불과함
- ▶ 정책대상의 모집단에 비교해 사업 규모가 제한적임. 여성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성과관리가 부족함.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 ▶ 주요 조사 내용은 첫째, 응답 여성기업의 일반현황 및 경영현황, 둘째, 여성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 및 융합현황, 셋째, 정책지원 요구임. 이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여성기업의 경영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 수준, 향후 경영 계획과 필요한 정책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 전체 213개소의 여성기업이 조사에 응답하였음. 이중 ‘제조업’은 141개소로 전체의 66.2%를 차지하고 나머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은 72개소로 33.8%를 차지. 응답 기업의 성장 단계는 창업 초기 진입기가 51개소로 약 23.9%, 성장기가 95개소로 44.6%, 성숙기가 48개소로 22.5%이며 쇠퇴기라고 응답한 기업은 19개소로 8.9%를 차지함.
-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준비 및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준비를 못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8.1%를 차지함. 준비하는 기업은 신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51.5%)과 새로운 사업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50.0%)에 주력함. 준비 못 하는 기업의 사유는 투자자금의 부족(40.0%), 전문인력의 부족, 제품 특성상 불필요, 수요창출의 불확실성(각 20.0%) 등임. 앞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0.3%.

-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도입의 어려움 78.9%, 인력확보 및 활용의 어려움 73.2%, R&D의 어려움 69.5%, 판매나 영업의 어려움 59.6% 등으로 나타남. 당면 애로 사항은 임금상승(63.8%), 자금확보(63.4%), 인력확보(56.8%), 판로확보(45.1%), 과당경쟁(44.6%), 기술혁신 및 신제품개발부진(44.1%) 순임. 성장 단계별로 진입기에는 자금, 판로, 마케팅 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고 있고 성장기에는 자금, 인력확보, 임금상승 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음.
- ▶ 최근 3년간에 정부 지원은 R&D 자금지원(26.8%), 융자 및 보증지원(55.4%), 마케팅 및 판로개척지원(23.5%), 수출지원(16.0%), 고용상 세제지원(19.7%), 청년 인력 지원(30.5%), 기술인력 지원(5.2%), 기술지원(2.8%), 맞춤형 컨설팅 등(19.7%) 경험함. 정부 지원으로 경영이 매우 개선되었다는 응답보다는 약간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많은 지원은 R&D 자금지원임.
- ▶ 향후 지원받을 의사가 있는 사업은 융자보증지원(55.4%), R&D 자금 지원(52.1%), 마케팅 판로개척지원(50.2%), 기술인력 지원(39.9%), 청년 인력 지원(39.4%), 고용상 세제지원(33.3%), 맞춤형 컨설팅 지원(32.4%), 수출지원(31.5%) 등임.
- ▶ 여성기업지원을 위한 사업 경험은 기술보증 시 여성기업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13.6%), 여성 전용 R&D 자금지원(11.7%), 여성기업전용 벤처 펀드 참여(7.5%) 등임. 여성 경제인 혁신역량 강화사업이나 공공구매 참여 경험이 가장 높고 나머지는 참여 경험이 다양하지만, 창업보육시설 이용을 제외하고는 참여나 활용은 10%대에 머무름.
- ▶ 기술기반 기업에 중요한 여성기업전용 벤처 펀드 제도, 여성 전용 R&D 자금지원, 기술보증 시 여성기업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 등의 인지도가 매우 낮으나 이들 사업에 대한 향후 참여 의사는 매우 높음.
- ▶ 참여 의사가 없는 사유 중 준비할 인력이 부족하거나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이 많고 지원자격이 되지 않는 기업도 많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책 요구나 정책의 필요성이 성장 단계 및 기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기존의 여성기업 대상 정책 외에 기술기반 기업들에 대한 정책 발굴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고도기술 기업에서의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요구나 성장 단계별로 성장기에 이른 기업들에 전문인력 지원 요구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성기업 지원정책도 기존의 전체 여성기업 대상에서 더 나아가 전문화될 필요가 있음.

3. 정책제언

- ▶ 여성 창업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에서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의 중요성이 제기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음에도 그 성과는 여전히 높아지지 않고 있음. 기술기반 창업정책을 평가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정책대상의 모집단에 비교해 사업 규모가 제한적이므로 여성 벤처 펀드와 같은 기술창업의 대상자 확대 및 규모 증가 등이 필요함.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여성기업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특정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성장 단계에 따라 자금지원 한도를 유연하게 확대하고, 성장기 및 성숙기에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크므로 좋은 인력의 확보 지원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인력 지원정책에서 여성 기술기반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선할 것을 제안함.
- ▶ 기술기반 기업은 기존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기술 투자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으므로 기존의 여성기업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특정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기술기반 여성기업의 분야별 협회 등을 모아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내 여성기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통의 관심사와 정책 요구사항을 발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함.
- ▶ 정책성과 점검 등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함.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별로 추진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정책보고서나 기초자료를 생산해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함. 여성기업 우대제도와 새로 도입하는 평가위원 30%를 여성으로 선정하는 방안의 효과 등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검하여 근거기반 정책수립에 활용할 것을 제안함.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을 중장기로 전환하여 단기 정책이 아닌 중장기 정책으로 차별성을 꾀할 필요가 있음.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관계부처: 여성가족부